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신앙노선**(요약)

백영희목회연구회

pkist.net

.서 문

1. 신앙노선을 중심으로 소개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의 신앙노선을 총괄 요약하여 소개해 보았습니다. 소속 교회의 외형적 조직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일반 교단들과 달리 ‘총공회’는 개교회주의 노선이므로, 신앙노선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 교단처럼 현황에 대한 소개 대신 그 신앙노선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2. 백영희신앙노선을 중심

총공회 신앙노선의 실체는 백영희신앙노선에서 찾을 수 있고, 총공회의 외형적 모습은 결과일 뿐입니다. 본 소개서는 백영희신앙노선의 형성과정과 실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반 소개서에 비하여 다소 난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정확한 내용은 ‘pkist.net’을 참고

이 책은 인터넷 홈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백영희목회연구회의 홈 내용을 일부 요약 소개한 것입니다. 더 자세하고 확실한 내용은 백영희신앙노선 연구를 집중하는 ‘pkist.net’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백영희신앙노선과 총공회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질문 또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2003. 7. 17.

백영희목회연구회

□ 차 례

제 1 장 총공회 신앙노선

1. 출발 과정	7
2. 성장 형태	8
3. 교계적 주목	9
4. 총공회 명칭	10
5. 총공회 역사	13
6. 총공회의 특색과 신앙	19

제 2 장 백영희목사님

1. 약 력	26
2. 백영희목사님 교훈 노선	30

제 3 장 한국 교회사에서 본 백영희 신앙노선

1. 식민지 신사참배 사건	35
2. 교회사의 중앙에 위치한 신사참배	36
3. 고신의 한국교회사적 위치	37
4. 고신 내부의 진리운동	39
5. 한국교회 내의 총공회	43

제 4 장 주요 교리 소개

1. 정통 교리의 발전적 모습 45
2. 구원론 중심의 삼분론과 건설구원 교리 46

제1. 건설구원론

1. 기본구원과 건설구원 49
2. 기본구원 50
3. 건설구원 55
4. 성경 해석과 건설구원 60
5. 신앙 현실과 건설구원의 적용 68

제2. 삼분론

1. 의의 71
2. 인간의 창조 73

【부 록】

1. 총공회 중요 기록 발췌 87
2. 주요 교리 교훈 요약 89
3. 총공회 관련 참고 자료 95

제 1 장 총공회 신앙노선

1. 출발 과정

총공회 신앙노선은 총공회를 지도한 백영희목사님의 신앙노선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영희목사님은 원래 예수교장로회 고신측 교단 유력 목회자였습니다. 고신의 지도부가 교권 중심의 정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다가 1959년 6월 제명을 당합니다.

이후 백목사님은 고신이 추구했던 원래 진리 중심의 노선을 찾아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7년이 지난 1966년에 현 총공회 신앙노선을 확정짓고 정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노선은 백목사님의 평소 신앙 성향이지만, 교권으로 타락하지 않을 교회 체제로서 확정 짓고 발표하는 데는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신앙노선은 교회를 ‘교단 중심’의 행정체제 대신 ‘개교회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교회주의’라고 하며 이 교회들의 총합을 ‘공의회’ 또는 공회라 합니다.

이렇게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교회들이 가까운 지역이나 가까운 관계로 모일 때 ‘공회’라 하기 때문에 이 신앙노선의 교파적 전체 이름은 ‘총공회’라고 합니다. 그 제1회 공회가 1966년 5월 26일입니다.

2. 성장 모습

제1회 공회로 회집된 총공회는 그동안 연구하고 확정했던 신앙노선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에서는 유일한 공회체제의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도 중심에는 백영희목사님이 있었고 그는 현재까지 세계 최대 주일학교로 기록되는 부산서부교회를 중심으로 공회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는 직접 교인들을 길러 소속 교회 대부분을 개척, 지도하였고 1965년 총공회가 출발하던 당시 18개 교회, 1970년 27개 교회, 1975년 40개 교회, 1980년 62개 교회, 그리고 1990년 100여개 교회였습니다. 2000년 현재, 미주 7개 교회를 포함하여 약 200여개 교회가 공회 소속으로 있거나 공회 신앙노선 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목회자와 약 십여 만 명의 교인들은 그 소속을 어디에 두고 있든지, 총공회 신앙노선이 그들의 평생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회의 엄격한 신앙 분위기 때문에 일반 장로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활동하는 분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러나 공회는 타 교단과 같이 조직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신앙노선으로 존재하므로, 공회 내부와 외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공회 출신 교역자와 교인은 평생 그 주변에서 아주 특별한 신앙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총공회 신앙노선의 성장모습도 외적 통계보다 실질적인 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총공회는, 교단적으로는 소규모로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내 보수 성향 신앙노선의 최 핵심부에 위치하여 여러 보수 교계에 많은 면으로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교리와 신앙노선이 현재 한국교계 보수신앙에 어떤 면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적 조직체로서가 아니고 신앙의 실질적인 면에 치중하여 온 결과일 것입니다.

3. 교계적 주목

1979년, 그 동안 교계에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활동이나 대외 관계를 갖지 않고 목회 일선에만 있었던 총공회와 그 중심 교회인 서부교회, 특히 이를 주도하고 있던 백영희목사님은 세상 일간지의 우연한 특종보도로 '세계 최대 주일학교'로 소개됩니다. 이후 1980년대 10년간을 교계 언론의 기획 보도로 심층 취재가 계속 이어졌고 또한 이 기간에는 전국 주요 교단 교회들의 방문이 잇따르게 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보 한 장 출간해 본 적이 없는 정도로 홍보 자체를 피했던 총공회는 일반 교계의 당시 모습과 너무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공회는 세상 환경에 따라 재빨리 적응하고 변화해 온 일반교계와 달리, 한 시대 이전 순수했던 이전 한국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으며 동시에 한국 교회가 전진할 다음 세대의 마땅한 개혁적 모습과 함께 교회가 지켜야 할 보수적 모습을 함께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4. 총공회 명칭

① '총공회'의 정식 명칭 -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우리 장로교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은 '대한 예수교장로회'입니다. '대한'이라는 명칭은 구한말에서 해방 직후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 시대상황에서 애국심의 발로로 유독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해방 후 '대한'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단체에서 애용하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운동은 애국과 상관없이 순수한 복음운동 그 자체만이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총공회는 '대한'이라는 명칭을 빼고 그냥 '예수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 장로교단들이 '대한 예수교장로회'라는 단일 간판을 사용하지만 실은 이 이름 하에 100여 개가 넘는 교단들이 서로 그 이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 다르면 그 이름도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걸음이 서로 다르다면 다른 표시, 즉 교단들의 신앙노선을 표시하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공회 노선은 '총공회'라는 이름을 외부로 표시합니다. 개교회주의 교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요약한다면, 장로교 소속의 교회들 중에서 중앙 교권을 배제하고 개교회주의 입장으로 나가는 교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Presbyterian Church of Jesus, Korea General Council'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② 약칭 '공회'의 유래

총공회가 사용하는 '공회'라는 표현은 그 유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공회'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 이후 교리 문제로 모였던 니케아 종교회의 등 여러 공회가 교회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잇는다는 뜻으로 총공회는 ‘공회’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어로 사용할 때는 ‘Synod’보다 ‘Counci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Synod’에도 공회라는 뜻은 있지만, 예루살렘공회나 니케아공회는 ‘Council’이라고 하며 이는 통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③ 정식 명칭은 ‘총교회’

여러 공회들이 전체로 모이면 ‘총교회’입니다. ‘총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이 신앙노선으로 가는 모든 교회들의 총합입니다. 그 소속 공회는 인근 지역으로 모여 지방공회를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상관없이 신앙노선의 원근을 따라 개별공회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좀더 확대하면, 중국선교공회와 같이 교단 형태가 아닌 복음 사업 부문별로 형성된 공회가 소속 공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④ ‘예수교장로회’라는 의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회는 교회들이 교단 명칭 앞에 ‘대한 예수교’로 시작하는 등 국가적 의미를 교회 이름 앞에 놓는 것을 아주 반대합니다. 교회 명칭에서는 국가라는 것이 그 교회의 위치 또는 장소적 의미에서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회는 그 이름 앞에 ‘대한’을 빼고 바로 ‘예수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명칭은 ‘of Jesus’ 또는 ‘Jesus’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는 구미에서는 ‘Church’는 으레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Jesus’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포함시키기에 곤란한 사이비 종파들이 자신들을 굳이 기독교라고 강조하기 위해 ‘Jesus’라고 표기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 표시 ‘Jesus’의 부착은 자유롭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공회의 영문 표기는, 'The Presbyterian Church, Korea General Council'이라고 한다면 정식 통합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교'를 포함시키고 싶을 때는 'The Presbyterian Church of Jesus, Korea General Council'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The Jesus Presbyterian Korea General Council'이라는 이름도 좀 무리가 따르지만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는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총교회 이름은 총공회가 정하는 것이고, 현 한국교계와 같이 수백 개의 교단들이 꼭 같은 이름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수백 명이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듯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므로 교계를 향해 자신들의 신앙노선과 성향을 따라 공식 이름도 따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⑤ 한국 '장로교' 이름의 변천사

교단의 '명칭'에 관련하여 공회는 한국 장로교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반 장로교 교인들의 인식은, 수백 개 교단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기이한 형태에 익숙해져서 공회와 같이 자신의 고유 이름을 가진 곳을 이단처럼 대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단 명칭 소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국장로교의 명칭 변천사를 소개합니다.

- 1893년, '장로회선교공의회'
-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 1907년, '예수교장로회 대한로회'
-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 194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5. 총공회 역사

1952년, 부산 서부교회로 부임했던 고신 교단 소속의 백영희조사님(전도사의 당시 명칭)은, 당시 장로교가 고신측과 총회측으로 분열되면서 극단적인 교권투쟁이 진행되자, 소속 교단 지도부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고신측 목회 현장에서 그의 발언과 영향력은 지대했으므로 지도부는 1959년 그를 제명 조치하여 일단 교단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고신 지도부와 맞설 수 있는 세력을 고신 내에서 결집할 수 있었으나 교회가 교단 정치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교권과 타락의 시작이 되는 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개교회주의 노선으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개인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교회는 각 개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양심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옳다는 노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총공회 출발의 배경이 된 사안들을 예로 들면

① 반소 문제

한국 장로교는 원래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단일 교단이었으나 해방 이전 교회가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시행했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론을 두고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대부분 교회는 그 처리를 조용히 넘어가자고 주장했고, 반대를 했던 교회들은 먼저 깨끗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로교 헌법은 모든 것이 다수결로 처리되므로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 옥고를 치른 소수파를 장로교 내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 당한 측이 부산의 고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고신교단이고,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이들은 서울의 총신대 장신대 한신대를

운영하고 있는 통합 합동 기장측 교단들인데 해방 직후 고신측을 제거할 때는 이들이 힘을 합했습니다.

장로교 교단이 두 개로 나뉘게 되자, 양측 지도부 소속의 지방 교회들은 일제히 소속 문제를 두고 교회 내 의견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 재산 분할 등의 문제로 세상법정에 서게 됩니다. 고신 소속이었던 백영희목사님은 세상 모든 면으로 불리해도 소송은 할 수 없다고 고신측 내부에서 반론을 펼쳤으나 오히려 이 주장 때문에 고신에서 제거됩니다.

참고로, 백목사님 주장은 교회 신앙문제에 관련한 소송은 원고소송은 물론 피고소송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유엔군 철수 문제

6.25 전쟁이 끝나자 UN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한국교회가 입은 피해도 아주 컸으므로 한국교회는 일제히 UN군 철수 반대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신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회단체들과 기독교회는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전쟁의 참화 때문이었겠지만, 교회의 철수 반대운동은 교회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선을 넘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속 교단이던 고신 지도부를 향해 백목사님은 이 문제를 두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고신 지도부는 이를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적으로 지도부의 신앙 지도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자 훗날 백목사님을 고신에서 제거하는 일에 큰 배경이 됩니다. 예배당 소송 문제만큼 큰 사안은 아니었지만 소송 문제로 극심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발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③ 고신의 교단지 '파수군' 운영 문제

소속 교단이었던 고신은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장로교 주도측에 비하여 모든 면으로 현저하게 열세였지만 '파수군'이라는 책자를 통해 왜 고신의 노선이 옳은지 등을 조목조목 열거해가며 한국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 고신이 옳았기 때문에 반대측은 파수군의 외침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반면 고신은 고신의 진리운동이 파수군을 중심으로 전파된다고 할 만큼 그 교단지의 역할은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신 지도부가 초기 진리 운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교권 투쟁에 전념하게 되면서 이 파수군 월간지 운영은 폐간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진리보다 교권확보 등 세상 이권에 민감했던 지도부와 백목사님 사이에 파수군 운영 문제를 두고 그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한 시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기관지 발간 문제라는 작은 사안이었으나, 이면에는 고신의 향방을 교권에 두자는 측과 진리에 두자는 충돌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도부는 발간을 포기했고 백목사님은 서부교회 단독으로 발간합니다. 훗날 교단의 요구로 다시 되돌려 주게 되었지만 이 문제는 양측이 신앙노선을 함께 갈 수 없는 형편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④ 진리의 종들 제거 문제

해방된 한국교회는 비록 그 숫자는 적었지만, 고신이 교계의 중심에 서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해방 직후 '진리운동'을 내걸고 출발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한국교계에 진리운동을 할 종들은 고신에 다 모였다 할 정도였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그 중심인물들 때문에 한국교회 내의 위상이 올라가자 교단 지도부는 교권 유지를 위해 지도부에 통제가 되지 않는

인물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단의 결정은 다수결이므로 아직 다수 회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 그 교권을 확고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때 제거되는 인물들이 훗날 각 교단에 흩어져 한국 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일반 교역자나 교인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진행된 교단 내 은밀한 움직임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 백목사님이었습니다. 교권을 휘두르는 이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권면하는 선지자는 결국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문제도 고신으로부터 총공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주 깊고 은밀하게 작용했던 요인입니다.

⑤ ICCC 가담 문제

고신과 신앙노선을 함께 할 수 없는 사안이 하나 둘이 아니었지만, 당시 세계 교회의 흐름이 반공 보수를 주장하는 ICCC 그룹과 친공 자유신학을 걷는 WCC로 나뉘어 양분된 상황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됩니다. 소속은 교단 전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신은 반공이 기독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였고, 백목사님은 교회 자체는 세상 정치문제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세계교회가 양분되어 투쟁을 벌이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선진국들은 후진국 한국교회에 돈과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결국 고신은 ICCC의 한국측 핵심 회원이 되고, 백목사님은 이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고신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신앙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반공을 표방하는 ICCC 운동은 공산 침략으로 6.25를 겪은 한국교회에게는 너무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교계는 세계 보수교회들이 펼치는 반공전선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⑥ 교권 문제

위에서 말한 모든 문제와 겹치는 문제입니다만 고신의 교권화 과정에서 교단 운영의 모든 구조와 운영의 세부사항까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게 됩니다. 이제 고신이라는 교단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지도부의 생존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현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한상동목사님과 송상석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양파의 발언권에 의하여 교단 운영은 완전히 치우치게 됩니다. 이미 일반 종교 단체 수준에서도 넘어서면 안 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단 내에서 성경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굽히지 않는 실력자가 있다면 교권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신에서 백영희신앙노선이 분리된 원인입니다.

⑦ 고신의 신학교 정치학 강사 문제

송상석목사님은 약칭하여 ‘고소파 송목사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분입니다. 세상 행정과 법률 체계에 대하여 전문가적 수준을 가진 분이어서 교단의 모든 법적 분류에 개입했고 또 발언권이 강했습니다.

그가 고려신학교 과목 중에서 교회법과 교회정치를 가르치는 ‘교회정치’ 과목에 강사로 임명이 되자, 백목사님은 교회법과 세상법을 혼돈한 인사라고 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목사님을 만나 그 교체를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이후 송목사님은 백목사님을 고신에서 배제할 때 앞장을 서게 됩니다.

⑧ 교회 이동 문제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은 백목사님이 고신에서 제거되지 않을 수 없었던 내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신이 막상 백목사님을 배제할 때 표면에 내세운 것은 상급기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 그 죄목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부산 서부교회를 떠나 서울지역으로 교회를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백목사님은 1952년 서부교회로 부임하면서 고신의 핵심 지역인 부산에서 교회 소속을 떠나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실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고신 내 지도급 목회자들은 백목사님의 서부교회 목회에 비교가 되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고신 내 가장 유력한 목회자들 소속 교인들과 측근들이 백목사님께 지도를 받겠다며 교회를 이동하는 일이 많아지자 서부교회를 교단 헌법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 교회를 목회하고 충성하는 교역자에게 자신들의 목회가 비교된다 하여 강제로 교회 이동을 추진하게 되자, 백목사님은 이 명령이 교권으로 개교회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특히 이 조치 뒤에는 고신 내부에서 그동안 계속된 근본적인 신앙 노선의 차이에서 오는 필연적인 보복으로 판단하여 이동명령을 전면 거부하게 됩니다.

고신 지도부는 비록 명분은 가장 궁색하지만 이런 행정 명령에 의하여 조처하지 않고 신앙노선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백목사님과 논쟁을 벌여야 하게 되는데, 진리노선을 강조하는 고신으로서 치명적인 반론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회 불신임, 당회장 명령 거부'를 이유로 고신에서 제명하게 됩니다.

고신의 이런 조처에 대하여, 백목사님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고신의 내부 개혁을 지적했고, 결국 그 진리 문제로 제명된 것이므로, 향후 총교회 신앙노선의 출발점으로 삼게 됩니다.

6. '총공회'의 특색과 신앙

(1) 총공회 신앙노선

① 진리 중심의 개교회주의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는 교회의 행정보다 교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진리’ 중심의 진영이며, 교회 행정에서는 조직과 제도를 앞세우는 단체성보다 하나님과 연결된 각 개인과 교회의 ‘자유성의 신앙’을 더 귀중히 여기는 ‘개교회주의’노선입니다.

② 3대 행정노선

공회는 ‘진리 중심의 개교회주의’를 그 신앙노선의 근본에 두고 있는 바, 이를 보장하기 위해 3가지 행정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법 유일주의’, ‘전원일치 의결주의’, ‘교권직 배제주의’입니다.

첫째, ‘성경법 유일주의’란 교회에 성문헌법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만 유일법으로 인정합니다. 교회는 교회헌법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그 헌법은 다수결로 채택되고 개정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운영은 세상 정치단체를 닮아 결국 총체적으로 탈선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전원일치 의결주의’란 다수가 소수를 숫자로 눌러 가는 구도를 근본적으로 지양하고 신앙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릇 결정이란 전원이 진리라고 인정해야만 결의하게 됩니다.

셋째, ‘교권직 배제주의’는 어떤 기관이나 사람도 구조적으로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교인에게는 개인신앙자유를, 그리고 각교회에게는 개교회자유를 보장합니다. 보통 이 원칙을 ‘총회장 비상존 원칙’으로 표현하나 그 내면은 교권직 일체를 배제하는 것이며, 그 가장 대표적 경우가 바로 ‘총회장’입니다.

③ ‘진리보수성’ 신앙노선

공회의 신앙노선을 살피면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원칙은 ‘진리보수성’입니다. 공회는 그 진로와 진행 방향을 두고 항상 이 원칙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을 교회는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를 두고 늦게 가는 측을 보수신앙이라 하고, 앞서 변하는 곳을 진보주의 또는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공회는 이 문제를 두고 ‘진리보수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와도 반드시 과거 해 내려오던 것을 먼저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보수하게 됩니다. 시대를 따라 바뀌는 것만을 능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공회는 한국교회가 오래 전에 버린 수많은 교회 전통을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 면 때문에 공회는 일반 교계 시각에서 본다면 보수 중의 보수노선이라 하여 ‘극보수’라는 표현까지 흔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성’은 일반교계의 단순한 보수주의와 달리 ‘진리’에 강조가 주어진 ‘진리보수성’입니다. 만일 전통과 정통이 성경에 틀렸다면 교계의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공회는 정통과 전통에 얽힌 계통이면서도 그 교리와 행정에 있어 특별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 면 때문에 공회 노선은 진정한 이 시대의 개혁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진리보수성’이 실제 총공회 행정 노선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다음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총공회의 보수성과 개혁성이 오직 ‘진리’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예들입니다.

(2) 몇 가지 특별한 총공회 제도

① 매2년, 목회자 시무 신임투표

공회는 오늘 교회의 탈선에 대한 첫 책임을 목회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교역자 탈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매2년 시무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지난 2년의 소신 목회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혹독한 제도이지만, 이미 십자가를 본업으로 삼은 이들이므로 오히려 목회자들이 앞서 자청할 제도라는 것이 공회의 시각입니다. 신임투표의 방법 역시 대단히 엄한 편입니다.

매2년 소신껏 목회하되, 목회자는 주일오전 참석 교인에 대하여 제한 없이 투표권을 허락하고, 비밀투표를 통해 4분의 3 이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 발표와 동시에 담임 목회직을 자진 사직한다는 조건입니다. 무한 임기로 재직할 수 있는 교역자 기득권을 교역자들 스스로 철폐한 이 제도는 현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전체를 통해 이렇게 전면적으로 적용된 예는 없습니다. 197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벌써 33년을 넘겨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목회자의 임기를 70세까지 보장하고 있는 일반 교계에 대하여, 공회는 단 2년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짐이 되었다가 쫓겨나는 험한 결과를 보지 않으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② 주일학교 제도의 전면 개편

수백 년 교회가 운영하던 주일학교 제도는 천편일률적으로 세상 교육제도를 쫓아 내려왔습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면을 수정하여 공회는 1960년대부터 주일학교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세상 학교의 학년

별 학급편제와 1년 임명직 담임교사제는 복음의 심정도 아니고 또 교회가 가질 자세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주일학교 편제는 세상 학교 학년을 따라 편성하지 않고 학생을 책임진 선생님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편성하고 한번 맡은 학생은 가깝게는 주일학교 졸업 때까지, 그 후는 평생 신앙의 책임자로 그를 위해 기도와 모든 지도를 책임지게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교육심리학적 요소를 전면 배제하고 장년반 예배와 같이 운영하여 주일학교를 순수한 예배 모임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제도 개편과 운영은 세계교회사에 기록될 대 부흥으로 나타났고 현재 총공회의 외부 인지도는 거의 이 주일학교의 독보적 성공에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총공회 주일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1980년대 10년 동안 한국교회 전체가 생방송을 지켜보듯 진행되었고 그 파급효과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연간 수십만 명 이상의 주일학생 전도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에 주일학교를 통과한 이들이 현재 30대로서 한국교회 주 청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선진화 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세대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는 주 청년층이 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경탄할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③ 경건주의 신앙 견지

주일성수나 기도, 또는 말씀 중심의 생활이 교회의 원래 모습대로 지켜지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현 교계의 전반적 추세는 1970년대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교회가 지킬 경건을 전부 분실해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회는, 아직도 남녀반을 분리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를 간단하면서도 말씀 은혜 면에 중심을 두고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일상 생활은, 늘 교회와 신앙인이 지켜야 할 근본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지

키고 있는 경우도 현 교계에서 교단적으로 본다면 아마 총교회만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벽예배까지 매주 11번의 예배를 공식예배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연 2차례 정도의 집회는 매 집회마다 설교만 2-3시간, 하루 3회로 한 주간을 계속하는 바, 이 역시 총교회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생활 속에서 진정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의 근본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 분위기를 ‘경건주의 신앙’이라 부르고, 이런 신앙이 아직도 견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공회의 신앙노선이 특별하고 또 바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④ 공회의 명칭과 찬송가 문제

공회는 각 교회들이 개교회 형편에 따라 결정하도록 허락하고 있지만, 공회의 공식 명칭과 찬송가 사용 문제에 대하여는 타 장로교 교단들과 다른 모습의 이름과 함께 공회 찬송가를 강하게 권합니다. 교단 명칭 문제는 앞에서 자세하게 살폈으므로 여기서는 찬송가 문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교계가 자신들의 신앙노선에 따라 여러 가지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다가 1983년에 찬송가를 통일하게 됩니다. 찬송가는 각 교단의 교리와 신앙노선이 반영되는 것인데, 교회를 정치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우선 찬송가를 통일하자고 목표를 세운 다음, 각 교단의 흥정과 이권 배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무작정 통일을 했습니다.

이전 찬송가의 가사가 입에 익어있고 그 은혜 면이 탁월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통일 찬송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표에만 급급했던 것이 당시 교계 입장이고, 공회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회는 수백 개 교단들이 꼭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기형적이라고 보고, 또한 찬송가는 신앙과 은혜를 우선 고려한 공회 별도의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앞으로 새로운 번역성경이 나온다면

현재, 한국교회는 ‘표준새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성경을 출간하고 이를 한국교계 전체가 함께 사용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 이런 운동으로 전국교회가 새로운 번역성경을 사용하는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이제까지 설명 드린 신앙노선에 의하여 공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998년 9월 1일부터 보급되고 현재 각 교단별로 문제가 되는 표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판 성경은 그 번역 원칙이 옛 글체를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고쳤다는 것이 성서공회의 발표인데, 공회는 같은 것이면 이전 것을 선호하고, 만일 고치려면 탁월하게 좋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타협하여 내놓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 내용이 비록 건실하다 해도 공회의 신앙노선은 이를 경계하는 편입니다.

매사 새로운 사안을 마주칠 때마다 공회는 먼저 진리 ‘보수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어 ‘진리’ 보수성을 살펴서 과거 것 중에서 지킬 것은 지키되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은 꼭 수정합니다. 이런 원칙으로 살펴본다면 공회의 신앙노선의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 2 장 백영희목사님

총공회와 백영희

법과 제도로 존재하는 일반 교단과 모든 단체들은,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 있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한 개인의 중요성은 제재를 받아야 좋습니다. 반대로 법과 제도를 없애고 신앙노선으로만 존재하는 총공회는, 신앙노선을 바로 지도하는 한 개인의 유무가 공회의 유무가 되고, 그 개인의 신앙차원이 그 공회의 수준이 됩니다.

총공회 체제는 옳으면 따르고 은혜가 없으면 제각각 따로 나가는 개교회주의 노선인데도 총공회가 어떤 교단보다 더 강하게 결집되어 존재했던 것은 바로 백영희목사님의 교훈과 지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좋아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강제나 제재가 없지만 스스로 그의 교훈과 지도가 좋아서 소속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 총공회입니다.

따라서 총공회 신앙노선은, 그 명칭이 대외적으로 ‘총공회’로 발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백영희신앙노선’입니다. 현재 이 책에서 ‘총공회’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지만, 이 책에서 사용되는 ‘총공회’라는 단어는 항상 ‘백영희’라는 단어로 교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영희’라는 인물에 대하여 두루 살펴보는 것은 한 인물에 대한 연구이기 전에, 총공회 신앙노선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백목사님의 신앙 관련 사실들은 바로 총공회 신앙노선입니다.

1. 약력

백영희목사님은 1910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하여 27세 때 복음을 받고 30세에 목회를 시작하여 일제하의 신사 참배와 6.25동란 점령치하의 환란을 신앙으로 통과하고 수복 직후인 1952년 이래로 ‘부산 서부교회’에서 38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영감의 설교’로 널리 알려진 능력의 예배 설교로 반사들을 길러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만들었으며, 반사를 목회자로까지 길러 120여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의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교회’를 이루었습니다.

1957년 이래로 33년간 계속된 거창과 대구의 산상 집회에는 2만여 명이 참석해 왔으며, 매주 평균 11회 이상 되는 예배 설교가 ‘목회설교록’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설교록은 600페이지 분량 200여권에 해당되며 2003년 현재 110권이 출간되었고 완간을 위해 ‘백영희목회 연구회(pkist.net)’에서 지금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9년 8월 27일 백영희목사님은 주일 새벽 예배 설교 마무리 중 괴한의 칼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설교하다 설교 단상에서 순교하는 것을 평생 소원했습니다.

그의 생전 총공회는 그의 생애 자체가 총공회였고, 그의 사후 현재 총공회는 그의 생전 총공회를 기준으로 삼아 그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다음 약력은 공회 교회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소제목 ‘①성장과정’에서는 이 노선에 대한 하나님의 사전 예비를, 그리고 ‘②신앙과정’은 이 노선의 신앙 성격을, ‘③목회생활’을 통해서는 이 노선의 세세한 과정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① 성장과정

- 1910 : 7월 29일,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1045번지에서 7남매 중 차남 출생
- 1918 : 9세,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 3년간 계속
- 1920 : 11세, 신학문을 야학에서 2개월 공부, 7월에 '웅양 공립 보통 학교' 1학년 입학
- 1924 : 5학년 2학기말에 가정 경제 파산으로 자퇴
- 1926 : 일본으로 건너가서 17세에서 19세까지 3년간 탄광, 공장 등을 거치며 많은 경험 (소화원년)
- 1928 : 11월 귀국. 12월 11일 개명리 이경순과 결혼 (소화3년)
- 1929 : 9월 1일. 탁주 제조업 면허로 사업 시작 (소화4년)

② 신앙과정

- 1936 : 6월 21일 주일에 이경순사모님 농산교회 첫 출석
7월 4일, 말세 공포와 죄인 형벌의 공황심 폭발로 교회 출석을 시작하였고,
7월 14일, 안식교 권서 정사현 방문, '율법'을 말하여 이를 믿고 따라 2주간 안식일 지켰으나 농산교회 황보기장로님이 10여 차례 방문하여 하나님의 의로 구원된다고 권면,
안식교가 이단임을 깨닫고 즉시 회개
- 1937 : 세례, '백영희, 남 27세, 1937. 1. 31.(신년행사) 개명리 수유, 백영희弟, 시취 고도열(선교사)'이라고 교회 세례 명부에 기록됨
- 1938 : 1월 18일 진주성경학원 예과와 1학년 1학기 수료로 성경학교 공부를 종료
10월 19일 오전 8시 - 20일 오후7시, 신사참배 문제로 화산 봉에서 금식기도. 기도 중 하늘 음성을 듣고 6년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음

③ 거창의 목회생활

- 1939 : 고향 개명리 수유 동네에 기도소로 목회 시작, 장년 남녀 8인
- 1944 : 1월초, 개명교인 43명 전원이 돌림병,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일제 어려운 때를 지남
1-5월까지 총독부의 예배장소 합동령에도 불구하고 대낮 예배 6월 26일부터 일본어 강습을 위해 예배당이 강제 사용되어 정갑용택에서 예배
- 1945 : 4월, 녀 달이 지나면 해방이 된다는 계시로 마지막 신사참배 고비를 맞고 덕유산 기도 중 4일째 해방을 맞아 하산
8월 20일, 고제면 독립 축하 대회에서 대표 연설
8월 21일, 예배당 되찾아 수리
- 1946 : 3월 24일, 각자 가지던 새벽기도를 '기도회'로 정식 출발
4월 3일, 새벽기도회를 새벽예배로 정식 출발
- 1948 : 1월, 가조교회 집회, 신유 은사를 중단하고 말씀 강도 위주로 집회 전환
전도사 인허
3월, 봉산교회 집회, 17개 교회 400명 참석하고 초대교회 역사 경험
- 1949 : 5월 1일, 위천교회 부임
7월 18일, 위천국민학교 졸업식 때 국기배례 사건 돌출
- 1950 : 3월 1일,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국기배례 거부문제가 재발 사회 현안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기배례를 국기에 대한 주목으로 변경 결의 발표
6월 2일, 고려신학교 입학

④ 부산의 목회생활과 공회 지도

- 1952 : 7월 27일, 부산 서부교회 부임
- 1954 : 6월 17일, 고려신학교 제8회 졸업

- 1956 : 12월 성탄절 직후, 완전 삭발
- 1957 : 고신측 강도사 고시 합격, 제1회 거창집회(삼봉산에서 시작)
- 1958 : 제1회 대구집회, 부산 금정산에서 금정산집회로 시작 1968년
까지 계속
- 1959 : 4월, 고신 교단의 강도사 해임 통고
6월 11일, 시무해임 통고
9월 8일, 고신측에서 제명
- 1960 : 개교회로 출발하는 첫해로, 교회 운영 전반을 초대교회의 단
순화 은혜 중심으로 전환
성탄절의 일반 교회식 행사 폐지
목사 안수, 김현봉 이병규 한순직 김응익 이용규 5명 목사님
을 서부교회로 청빙 안수
- 1961 : 홍순철선생님의 주일학교 통합반 시범 운영
주일 저녁예배를 오후 예배로 전환, 학생회와 찬양대 존속 마
지막 해
성탄절 점심 식사 후 전도 시작
- 1962 : 예배당 전면 개수, 옆집 구입 후 단일지붕으로 통합 공사
- 1963 : 주일학교 통합반 운영 체제 전면 시행
- 1966 : 5월 26일, 제1회 공의회(총공회)로 출발
- 1967 : 거창집회가 도평 집회로 장소변경
- 1968 : 합동측 경북노회에서 총공회를 '백영희 이단 일파'라고 이단
정죄
- 1969 : 대구집회, 금정산 집회에서 이어짐
- 1970 : 8월 3일, 제2회 총공회
주일학교와 장년반이 각각 1천명 출석 기록
서부교회 예배당 콘크리트 3층 예배당으로 신축
- 1975 : 총공회 운영위원회 설치
10월, 김의환저 '이단의 정제' 출간서에서 한종희목사님의
'일부 독립교회편' 내용으로 총공회를 이단 정죄
- 1976 : 3월, 목회자양성원 설립
- 1979 : 2월 5일, 조갑제 기자(후에 주간조선 사장)의 주일학교 취재

보도로 서부교회 주일학교 존재의 교계 등장

1982 : 3월 10일, 백영희목회연구소의 전신으로 서부교회 편집실 출발
백영희목사님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환으로 수개월 고생

1987 : 8월 15일, 서영준목사님 사망
11월, 김철수목사님 탈퇴, 기독교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공회
노선 안에서 제기

1989 : 1월 3일, 백영익목사님 등 공회 내 수정주의 노선이 공회 행
정 5개 개선안 제출
1월 3일, 백목사님의 행정 8개안 발표
3월, 제19회 총공회
8월 27일, 백목사님 순교

2. 백영희목사님 교훈 노선

(1) 설교 흐름 연구의 중요성

총공회 연구에 있어 백영희라는 인물의 중요성은 앞에서 살폈습니
다. 우선 그의 신앙이력을 살피는 것은 가장 쉽고 간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공회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분석하려면 그의
설교 전체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그의 평생 설교에 그의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설교 연구가 총공회 연구의 중심입니다.

그의 설교는 그 양도 방대하지만, 신앙에 실제 필요한 면에 대하여
는 빠진 부분이 없다 할 만큼 모든 면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 교리 체계, 실생활의 행동 하나 마음 하나까지 어떻게 가져야
바른 신앙이 되겠느냐는 것을 두고, 완벽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공회 신앙노선에서는 성경 한 권 외에 필요한 서적은 그의 설교록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만큼, 그 설교 내용은 총공회 행정과 교훈에 있어 교과서나 사전 같은 위치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사모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그의 설교 내용은 광범위하게 참고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의 설교록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방대한 설교내용 중 어느 한 곳만 보고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설교록을 놓고도 그 해석과 적용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이 시기별로 어떤 면을 강조했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면을 주목했다는 점을 알고 또 그의 평생 설교 전체를 통해 소개한 신앙노선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총공회 신앙노선을 바로 파악하고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2) 설교의 시기별 흐름

① 1936-1938년

생활 흐름 : 처음 믿고 20여리 떨어진 고제교회로 출석하던 시기
 신앙 흐름 : 성경에 전념하고 깨달은 대로 실행하던 광풍의 시기
 설교 흐름 : 기회가 되면 어디서나 깨달은 대로 외치던 시기

② 1939-1945년

생활 흐름 : 개명교회를 개척, 일제 말기의 초기 목회 시절
 신앙 흐름 : 깊은 기도와 신비 생활로 계시가 많던 시기
 설교 흐름 : 하나님 사랑과 만물과 만 인간을 사랑하고, 죽어도 계명을 지키라는 설교가 계속되던 시기

③ 1945-1952년

- 생활 흐름 : 해방 후,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역사의 재현,
폭발적인 외부 활동과 신앙박해의 연속 시기
- 신앙 흐름 : 오순절 성령 역사와 바울의 사도행전 모습으로 계속
- 설교 흐름 : 가정과 시대 환란을 대비하여 생명 바칠 사람이 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 말씀

④ 1952-1960년

- 생활 흐름 : 부산 서부교회를 담임 하며 교계적 인물로 활동
신학과 교계정치를 접하며 외부로 활동하던 시기
- 신앙 흐름 : 세계 신학과 교계적 흐름 속에서 진리 노선 준비
- 설교 흐름 : 단절적 강해, 완벽한 원고 준비. 신학 이론이나 신학
인용이 나타나고 칼빈주의를 강조하던 시기

⑤ 1960-1970년

- 생활 흐름 : 고신교단에서 제명되고 서부교회 중심으로 자유 활동
- 신앙 흐름 : 총공회 노선의 확립기, 신앙과 복음의 사역자를 양산
공회의 행정과 교훈노선에 대하여 교계의 이단 시비
- 설교 흐름 : 세상과 자연에 대한 통찰이 많고, 일등교인 생활 강조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폭넓게 전개
중생론 구원론 등 총공회 교리 기본이 형성되는 시기

⑥ 1970-1982년

- 생활 흐름 : 서부교회의 초대형화 과정, 공회의 교단 체제 형성
- 신앙 흐름 : 대속에 감격한 사람, 시대적 책임을 진 선지자 모습
- 설교 흐름 : 총공회 신앙노선과 말세를 감당할 교훈을 쏟는 시기
교리, 행정, 현실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립, 재촉

⑦ 1982-1987년

생활 흐름 : 사망에 이를 중환, 총공회 내부의 노선 분립 시작

신앙 흐름 : 총공회 신앙노선의 의의를 정립, 강조

설교 흐름 : 총론 위주 설교로 전환되며, 한 성구에서 전 성경과
전 교리를 요약, 몇 가지로 간추려 결론 내던 시기

⑧ 1987-1989년

생활 흐름 : 세상을 떠나기 전, 정리해야 할 공사간 대소사 처리

신앙 흐름 : 처음 믿을 때 주님과 가진 내밀한 관계로 다시 회귀

설교 흐름 : 마23-25장 심정으로 떠날 준비, 신앙노선을 특별 강조
이 시기 모든 설교는 배경 사건을 모르면 이해 곤란
중생의 '본질'과 구원의 최종인 '소망'을 밝힌 시기
남겨질 교회와 교인에게 '주님 모신 독립 신앙' 당부

제 3 장 한국 교회사에서 본 백영희 신앙노선

총공회 신앙노선은, 초대교회와 중세 종교개혁을 잇고 현 세계교회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정통 장로교회 선상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개척한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정통은 해방 후 고신교파로 이어졌고, 총공회는 고신의 가장 순수했던 진리 계통을 현재 단독으로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교회사와 한국교회의 정통 계통을 한번 되짚어 보는 이유는, 정통에서 정통이 나오는 교회사의 계통 원리 때문입니다. 일단 세계교회사적 내력과 한국선교 초기역사에 대한 부분은 현 한국교회 대부분이 공통으로 가지는 역사요 계통이므로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대신 해방 후 신사참배 처리 문제는 아직도 현 한국교계의 정통성과 각 신앙노선의 순수성을 구별하는 기준이므로 해방 후 교계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식민지 신사참배 사건 - 해방 후 한국교계 분열의 분기점

신사참배는 식민지 총독부가 한국교회에게 일본 국신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하고 한국교회는 그 탄압에 못 견뎌 1938년에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결의를 한 사건입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살아남은 분들이 해방 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고신측입니다. 극소

수의 고신측과 절대다수의 신사참배 참석측의 대결이, 이후 교권문제로 변질되면서 견잡을 수 없는 분열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한국교회 분열의 시작은 신사참배 사건이었으나, 이 사건 처리가 진행되면서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요인이 다 개입됩니다.

총공회 신앙노선은, 고신에 소속해 있었고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는 한국교회의 정통을 잇는 극소수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후 고신이 진리운동을 교권투쟁으로 바꾸어 탈선하게 되자, 고신 내에서 유일하게 진리운동으로 나가는 교회가 됩니다. 물론 고신은 이런 총공회 신앙노선을 교단적으로 배제시켜 1959년에 제명처리하게 되지만, 이 처리는 오늘 한국교회사를 통사로 살필 때 오히려 총공회 신앙노선을 한국교회 유일의 정통 노선으로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2. 교회사의 중앙에 위치한 신사참배

선교 50여년 만에 닥친 신사참배 문제는, 120여년 역사의 한국교회사를 구분할 때 항상 제1의 기준입니다. 교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한국교회사에서 신사참배 문제만큼은 누구에 의하여 구분이 되어도 항상 한국교회사를 양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에서 신사참배 찬성측의 행동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이겼던 고신측의 행동을 두고, 일부 문제점이 있고 일부 수긍할 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신측이나 그 반대측을 막론하고, 또 세상 불신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일반 교계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제각각 다른 방향에서 서로가 하고 싶은 말들이 한도 없이 많겠지만, 총공회는 이런 일반 교계사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계통은 고신이 옳고, 고신을 반대한 측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계통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뿌리에서 끊어지고 비껴나갔다는 말인데, 이는 신앙노선을 두고는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두고 넓게 살펴볼 때는, 고신 내에서 한국교회의 정통성과 생명을 찾아야 그 가능성이 있지, 그 외부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공회는 신사참배 문제에 관한 한 고신 소속에 있었습니다.

3. 고신의 한국교회사적 위치

고신은 그들의 단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세계교회사를 잇는 한국교회내의 정통 교단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 교단은 생명을 잃었고 고신은 해방 후 생명을 가지고 있던 교단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고신은 오늘까지 한국교회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인들에 의하여 그 효과는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① 북한교회의 완전 몰락과 고신의 위상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쟁한 교회는 지역적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교회와 경남을 중심으로 한 남한교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해방 후 공산화가 되면서 북한교회는 교회사에서 그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해방 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측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신측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고신은 전국교회를 주도할 만한 인물도 실력도 조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곳은 바로 북한교회였는데 북한교회가 완전 몰락하게 되자, 한국교회는 남한교회를 말하게 되고, 남한교회로만 논한다면, 경남지역의 고신만이 정통교회가 된 것입니다.

② 한국교계 내 장로교의 위치로 인한 고신 위상

한국교회라는 표현은 원래 국내 개신교 교파 전체를 포함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총공회가 한국교회 또는 한국교계라고 말할 때는 흔히 장로교 교파들만을 상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일지 몰라도, 일반적 표현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등 다른 기독교선진국과는 달리 장로교가 한국교회의 신앙과 교세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는 장로교를 그 중심에 두고 역사한다는 점이 너무도 뚜렷합니다. 따라서 총공회는 종종 장로교를 한국교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신은 장로교 내에서도 가장 그 교세가 미약한 지역에 있고 또 한국교계적으로 볼 때에도 장로교 범위 내의 한 교파에 불과하지만, 해방 후부터는 장로교를 주도하고, 나아가 장로교가 주도하는 한국교회 전체를 주도하며 한국교회 전체 중심에 서게 됩니다.

③ 한국 교회의 보수성이 주는 고신의 위상

한국 교회는 초기 개혁주의 정통노선에 충실한 선교사들로 인하여 특수하게 보수적 교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수적 경향은, 수도 없이 많았던 사건들 중에 한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신사참배 문제를

오히려 확대 재생산해가며 오늘에까지 교계 운영의 한 축이 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파에 상관없이 보수화에 집착을 하게 된 것은 고신이 교계를 향해 발언권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방 후 한국교회는 교단 분열의 갈등과 여러 요인 때문에 묘하게도 보수성향을 강하게 유지하고 심지어 보수경쟁까지 벌이며 오늘까지도 보수주의가 대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고신에게 교계를 향한 발언권을 강화시켰고 고신은 그 교세적 열세를 원칙과 명분으로 상쇄했습니다. 오늘까지도 한국교계는 고신이 빠지면 한국교계의 통일된 의사가 아닌 줄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고신은 비록 한국교회의 군소교단 중 하나로 퇴락되어 있지만, 결정적 고비 때는 한국교회 전체를 좌우하는 위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4. 고신 내부의 진리운동 - 총공회

① 고신 내부의 진정한 고신은 총공회

총공회는 고신에서 배제된 지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교계는 고신계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신과 총공회의 깊은 내면을 알지 못하는 교계로서는 오히려 그렇게 아는 것이 객관적일 것입니다.

고신은, 고신 지도부의 교권화를 비판한 총공회 신앙노선을 교권으로 제거했지만, 고신이 '고신'으로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고신의 교권과 교세 때문이 아니라 고신의 정통성입니다. 그 정통성은 교권에 굴하지 않고 진리노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총공회 노선이 고신 내부에서 제거된 것은 무엇이 원인이며 그 내면이 무엇이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 앞부분 ‘총공회역사’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고신은 교권으로 공회노선을 배제했고, 공회노선은 고신 내부에서 진리노선을 외치다가 교권에 의하여 제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신이 진리노선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고신’으로 존재한다면, 총공회를 처리한 문제를 두고 고신지도부는 총공회노선에게 고신의 진리노선을 쥐어주고 내쫓은 것이 되었습니다.

고신 내부에서 고신이 원래 추구하던 진리노선 때문에 총공회 노선이 제거된 1959년의 백영희 제명 건은, 고신 지도부가 고신의 교권을 확보하고 그대신 고신 내의 총공회는 고신 울타리 밖으로 버려지면서 고신의 ‘진리노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보면 고신으로부터 총공회는 제명당한 교단이고, 내부에서 보면 고신은 교권을 위해 고신의 진리운동을 총공회에 넘겨주었다고 하겠습니다.

② 고신의 양대 세력 - 한상동의 교권파와 주남선의 진리중심파

현재 고신역사는 한결같이 고신의 설립자로 주남선과 한상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반론이나 이론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고신역사를 두고 고신 내부에서 이론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총공회노선밖에 없습니다. 총공회노선은 자기 갈 길에 바쁜 곳이지 외부를 비판하고 토론하는 데에는 시간을 아끼는 곳입니다. 이 책은 50년이 넘어 이제 한번쯤 정리해 봐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여 이 면을 간략하게 평가합니다.

고신의 지도부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쟁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자세와 어떤 신앙으로 반대를 했느냐는 문제를 두고는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한상동 송상석목사님으로 대표되는 교회정치파인데 이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도 또 그 사후처리도 교회정치면에서 접근한 분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주남선 손양원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진리중심파입니다. 이들은 신사참배도 하나님을 상대로 접근하고 반대했으며 또 사후문제도 그러했습니다. 조직으로 나뉜 것이 아니고 성향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진리운동파 중 손목사님은 지역 문제를 핑계로 스스로 일찍 고신을 떠났고, 주남선목사님도 1951년에 일찍 사망하게 되자, 고신 내부의 진리운동 전념파는 급격하게 위축됩니다. 그리고 고신은 외부교계를 상대로 장로교 전체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 성경적 투쟁방법과 세상적 투쟁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시점에 이르자, 급격하게 세상방법을 취하며 교권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주목사님 계열이 없는 고신은 한목사님 계열 일색이었고, 고신은 교권확보를 향해 거침없이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주목사님 대신 그 진리운동을 잇고 나온 분이 백목사님입니다. 당시 전도사였고 소장층이었기 때문에 교단 지도부에 의하여 결국 제거되지만, 고신 내에 주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순수한 진리운동파의 핵심이었습니다.

총공회의 출발은 백목사님이 고신에서 제명되는 사건에서 비롯되지만 실은 고신 내부 깊은 곳에 있었던 두 흐름 중에서 백목사님은 주목사님과 손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진리운동층이었습니다. 백목사님의 제거는 고신의 교권파가 진리운동층을 고신 조직 외부로 완전 제거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계교회의 정통선상에서 개척된 한국교회 내에서 총공회가 진리 정통을 잇는 계기가 됩니다.

③ 고신을 잇는 총공회의 위상

총공회는 백영희신앙노선에서 그 실체를 확인한다는 점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백목사님은 신사참배 환란 중에서 집사로서 교회를 개

척했고, 본인은 물론 지도하던 교인 전부가 다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도록 지도했던 분입니다. 고신교단 내에서 서열이 낮았고 또 본인이 시골에 묻혀 하나님만 상대를 했기 때문에 교회사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오히려 그 경력은 고신 내에서도 최고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해방 후 주남선목사님이 출옥하고 거창 지방으로 돌아오자 그는 백목사님을 고신 내 진리운동파의 대표로 힘껏 밀어올리게 됩니다. 이후 짧은 시간에 백목사님은 고신 내 최고의 부흥강사로 또 고신 목회 현장의 가장 중심에 선 목회자로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전적 하나님만 상대하고 인간 교류와 교회 정치에 전혀 상관치 않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능력과 주목사님의 지원 결과였습니다.

원래 교권파는 교회 정치 문제를 두고 제도와 법을 이용하여 교권을 휘두르는 것이고, 또 진리중심파는 어떻게 당한다 해도 인간적으로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장로교 헌법과 제도 선상에 있던 고신 내에서 백목사님은 교권파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 때 겪었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은, 이후 고신에서 제명된 후 백목사님으로 하여금 총공회라는 신앙노선을 걷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한국교회 정통성은 1959년 고신에서 제명되는 조처 때문에 백목사님이 받아가지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진리운동을 한 손에 받아가지게 된 백목사님은 ‘개교회주의’라는 노선으로 이후 한국교회의 진리운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다시는 교권에 의하여 단체가 탈선하지 않고도 진리운동을 하도록 개혁된 제도가 바로 ‘총공회 신앙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장로교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교권화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고, 그 배경은 바로 고신 내에서 겪었던 교권투쟁이었습니다.

5. 한국교회 내의 총공회

총공회는 1966년 제1회 모임을 갖고 오늘까지 한국교회 내에서 특별한 의미로 진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고신을 이어, 오늘까지 계속된 공회 역사는 한국교계가 교회로서 최소한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수없이 탈선할 때에도 항상 진리노선에서 그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정치에 휘둘려 어떤 때는 정권에 하수인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세상 인권이나 민주화운동에 일부가 되었을 때에도 총공회는 과연 한국교회의 생명성을 보유한 교단답게 유일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분열하여 그 분열의 상황을 교계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도, 또 그 분열을 해결한다며 교회 통일운동을 벌일 때에도, 또 성경번역과 찬송가 통일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그리고 교회의 교세확장 경쟁이 불붙어 교회가 기업들의 마케팅 기법으로 쓸려갈 때에도 총공회는 원래 한국교회가 서야 할 곳에 서 있었고, 지켜야 할 길을 홀로 지켜왔습니다.

자세한 자료와 상황은 다음 기회에 다른 책이나 pkist.net 홈페이지를 통해 살피겠습니다. 이 책은 간단한 소개책자로 출간되므로, 한국교회 내에서 총공회 신앙노선이 가진 의미만 간단하게 전달하려 합니다. 그 의미는, 한국교회가 원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다면, 그 길에는 늘 총공회 노선이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공회노선은, 한국 내의 수백 개가 넘는 교단 중의 하나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앞을 보는 눈이요, 한국교회가 원래 걸어야 할 노선이며, 한국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면 그 한국교회의 남아있는 생명의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제 4 장 주요 교리 소개

총공회의 교리 체계 일반

1. 정통 교리의 발전적 모습

교회는 '보수'와 '발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을 이상으로 삼지만, 이 둘은 병립된 경우가 희귀합니다. 그러나 공회 노선은 진리노선은 보수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 고칠 점은 서슴없이 개혁하여 나온 총공회 행정노선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제4장에서는 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면에 있어서는 제1편과 달리 '보수'해야 할 교리는 제외하고, 오직 '발전'해야 할 교리만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유는, 교회의 행정노선은 현장만 복잡하지 그 노선의 원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면을 함께 설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면은 그 내용이 한도 없이 많으므로 간추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교회가 자라감에 따라 마땅히 자라가야 할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교리들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장로교 기존 교리체계가 너무도 정확하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소개하는 교리들은 장로교 교리가 틀렸다고 임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 교리들은 장로교 교리를 세밀히 보완한 정도입니다.

2. 구원론 중심의 삼분론과 건설구원 교리

제4장에서 소개할 교리는 삼분론과 건설구원론 두 가지입니다. 삼분론은 ‘인간의 구성 요소는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는 교리이며, 건설구원론은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아 가지는 것과 자기가 노력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상기 교리들은, 장로교 교리체계를 전면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장로교 교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통찰한다면, 이 2가지 교리는 바로 장로교 교리체계가 가진 자체 모순을 일거에 해결하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어쨌든 전통의 교리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교리들은 ‘백영희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로교 교리계통은 바울과 어거스틴을 이어 칼빈신학에 현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볼 때, 백영희신학은 칼빈신학을 이어 오늘 장로교 교단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갔다면,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바로 그 교리환경입니다.

특히, 이 ‘백영희신학’의 교리들은 1990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달과 기존 교리들의 한계 때문에 더욱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신과 인간의 경계선을 없애가며 진보하고 있는 현대의 과학 특히 생명과학 앞에, 5백년 전 칼빈의 시대를 감당하도록 주신 교리만을 붙들고 안주한 것이 현 교계입니다. 백영희 ‘삼분론’과 ‘구원론’은 마음은 물질이며 이는 믿는 사람이 행위로 고쳐나갈 건설구원의 영역임을 40년 전에 이미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두뇌공학으로 접근하여 그 구조와 작동 원리까지 파악하고 있는 현 시대가 열리기 이전 벌써 백영희 교리체계는 장로교 교리 체계 내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체계는 오늘날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당하도록, 이 시대에 앞서 주신 진리노선이었습니다. 오늘날 생명공학을 이 교리체계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 과학의 발전과 기술력은 성경과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에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두렵게 하고 찬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이 책에서 백영희목사님의 총공회신앙노선을 소개하는 것은, 어느 한 교단의 자기소개나 그 지도자에 대한 홍보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세 교회 전체가 나갈 신앙노선을 소개하는 차원입니다.

소속 교단이나 인물을 대외에 소개하는 일은, 사실 총공회에서는 40년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노선을 소개한다는 차원임을 기억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제 1. 건설구원론

1. 기본구원과 건설구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잡지 못해서 천주교는 중세 1천년동안 사람의 힘으로 천국을 가겠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실은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리를 두고 기억할 이름은 바로 루터와 칼빈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은, 천국은 기본적으로 가게 되었으나, 천국의 영원한 모습이 각자 다 다를 것인데 오늘 세상에서만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천국가게 된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같이 무조건 받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믿은 후 건설은 각자가 다르므로 '건설구원'이라 합니다.

이제 설명 드린 것이 총공회 구원론입니다. 초기에는 정통 교리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나왔으나,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쉬운 교리이므로 아무도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나면 그렇게 쉬운 것인데, 이 건설구원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단호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요약하는 데 걸린 세월은 자그마치 450여년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교회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건설구원교리가

처음 교계에 전해졌던 것은 1960년경입니다. 물론 그런 성향의 발언을 했던 종들은 간혹 있었으나 정식 교리체계로 올려 정통 교리 체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올려놓은 공로는 전적 ‘백영희’입니다.

2. 기본구원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구원론’이라 했고 이 표현을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기본구원’이라 했습니다. 이 기본구원은 기존의 정통교리가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1) 기본구원의 요건

① 예수님

행4:12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구원은 반드시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야 합니다.

지금 공자나 석가를 믿는 사람도 봐주자는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의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기본구원의 첫째 요건입니다. 만일 다른 이를 믿고도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 이름이 ‘예수교’입니다. 석가를 믿고도 천국을 가고 싶다면 불교라고 하고, 공자를 믿고도 구원을 얻으려면 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② 믿음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무조건 받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예수님 수고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인간이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만들어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라 말은, 천국을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갈2:16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인간의 행위를 더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전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천주교로부터 개혁하고 나온 것은 구원은 전적 은혜라는 이 교리입니다.

③ 성령과 진리의 역사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과 진리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대속을 우리에게 입히는 책임자이고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중생이 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해결해 두었고 성령은 그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 우리를 살리되 진리의 법칙으로 그렇게 합니다.

(2) 기본구원의 결과

① 영의 중생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기도 전에 또 노력하

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사람을 씻어 그의 영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그 어떤 형태로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믿는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은, 사람이 아는 면으로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마음의 작용까지입니다. 자기 마음이 믿기로 결심한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인 줄로 사람들은 알지만, 실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믿을 마음을 가질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영을 무조건 은혜로 살려놓은 중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믿음’을 기본구원의 요건으로, 또 ‘중생’을 그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기본구원의 전개과정을 시간 순서로 살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② 하나님의 아들

영이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상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일반 만물 중에 한 존재로 있다가 영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으로 난 존재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기른다는 말이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질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에게 하나님 노릇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중생의 결과입니다.

③ 천국 영생

한번 중생된 사람의 영은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다음에 범죄하는 것은 마음과 몸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몸의 범죄와 성화의 정도에 따라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 자체만을 두고 말한다면, 다시는 범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믿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천국 영생은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끼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원이라고 합니다.

(3) 기본구원의 성격

앞에서 기본구원의 결과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중생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둘째, 이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3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기본구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를 3가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3가지 문제는 전부 중생된 영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중생되었다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단번 구원

기본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단번에 주어집니다.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대속하신 것도 단번입니다. 십자가는 두 번이 없습니다. 또 그 대속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도 단번입니다. 기본구원은 이렇게 단번 구원이므로 중생된 영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영으로 중생이 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범죄는 마음과 몸이 하는 것입니다.

② 완전 구원

기본구원의 두 번째 성격은 완전성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처음 믿게 하고 영을 중생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에 대한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하고 구원합니다. 미래에 지을 죄도, 알고 지은 죄도, 또 지극히 작은 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영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완전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의 중생은 미래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한 다음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믿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영으로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본구원의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성의 범위는 심지어,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완전하게 찢었지만 마귀의 눈앞에서도 어떤 티끌만한 것도 남김없이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본구원의 성격에 대하여 이 ‘완전성’의 문제는 구원을 할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문제입니다.

③ 영원 구원

안 믿던 사람이 처음 믿게 되면서 받는 기본구원의 세 번째 성격은 영원해결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그 순간,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유는 한 번 중생된 영은 영원성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믿을 때 중생되는 영은 횡수로는 단번이고, 범위로는 완전이며,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향해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생된 영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된 사람의 문제는 이제 다음에 설명 드리는 자기 몸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평생을 싸워가며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 건설구원 문제입니다.

3. 건설구원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본구원은,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무조건 천국을 가게 되는데, 믿는 순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아가지는 것 일체를 기본구원이라 합니다. 이에 비하여 이번에 살펴볼 건설구원은, 기본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은 후 평생을 살아가며 각자가 제각각 따로 건설해 나가는 신앙생활 일체를 말합니다.

평생 자기가 건설해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구원’이라 하고, 그 건설은 자기를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성화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깨끗해지게 되면 우리 속에는 의로 살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지므로 ‘기능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건설구원은 기존의 정통교리가 안개 속을 더듬듯 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설구원 교리를 세계 교회에 정리하여 일목 요약한 교리체계로 제시한 것은 총공회 신앙노선입니다.

(1) 건설구원의 요건

① 성령의 역사

안 믿던 사람을 믿게 만든 기본구원도 전적 성령의 역사지만, 믿게 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건설구원의 성화역사도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령 없는 성화는 없다고 단정하면 됩니다.

건설구원은 믿는 사람의 남은 평생 신앙생활입니다. 평생토록 말씀대로 살아도 성령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이 단독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 건설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도 성화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도 우리 심신이 성령을 따라 성령을 닮는 것이므로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심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② 순종

안 믿는 사람이 처음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항거를 해도 무조건 강제로 중생시킵니다. 이것이 기본구원입니다. 그러나 믿게 된 사람을 평생 고쳐가는 건설구원은, 자기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알고 따르고 순종해야만 고쳐집니다.

영을 살릴 때는 성령이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살려서 구원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믿게 된 사람은 전적 자유성을 허락하여, 자기 마음이 거부하면 성령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지 강제로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구원의 두 번째 요건은 우리 심신의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이 순종을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본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건설구원도 실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꼭 같은 표현이지만, 기본구원의 믿음은 믿어지게 하여 믿게 하고, 건설구원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은혜’를 강조했고, ‘순종’은 행동을 강조합니다.

③ 대속과 진리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전’ ‘단번’ ‘영원’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믿은 이후 평생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처음 믿을 때 구원해 주신 과거의 은혜로만 기억하고 감사하기 쉽습니다. 물론 처음 믿을 때는 대속의 은혜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은 이후 평생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신앙생활에서도 그 대속의 은혜는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어 천국을 가게 했고, 이제 믿은 이후 신앙생활에서 ‘대속’의 은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순종을 할 때에도 겉으로는 인간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순종을 하지만, 실은 그 인간의 노력과 순종만을 가지고는 흉내만 낼 뿐이지 실제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화가 되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의 노력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바탕이 되고 그 대속을 힘입어 순종할 때에야 심신의 요소 하나하나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믿을 때 대속은 우리라는 사람 자체를 씻어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고, 그 후 평생의 신앙생활에서는 그 대속이 우리 심신을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씻어 성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과 진리의 법칙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건설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2) 건설구원의 결과

① 심신 자체의 성화

성령이 인도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되 우리 심신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성화시킬 때 그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대속으로 씻겨 나가는 것이 성화구원임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구원의 결과는 마음과 몸의 성화입니다.

영은 중생되는 순간 바로 깨끗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복합체로 된 물질이므로 평생 계속 마주치는 현실마다 그 현실에 해당된 마음과 몸의 각 요소가 그 현실에서 순종하면 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화될 기회를 놓쳐서 부분적으로는 지옥에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성화된 부분을 평생 모아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계를 낸 것이 천국 간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즉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쥐고 갈 것은 중생되는 순간에 살려놓은 영과, 그 영이 평생 깨끗하게 만든 몸과 마음의 성화된 부분 전부입니다. 건설구원의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심신의 성화의 양입니다.

② 심신의 기능

건설구원의 첫 번째 결과가 심신 자체가 깨끗해지는 성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결과는 심신이 가진 실력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 평생 마련하는 것이 건설구원인데, 자체 성화에 이어 우리가 평생을 통해 두 번째로 마련하는 것은 바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마음과 몸이 의를 행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본 그 횟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종하는 만큼 그 심신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 자라게 됩니다. 이 의의 기능, 심신 속에 준비된 의의 기능은 건설구원의 결과입니다. 비록 그 양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평생 순종하고 산 것 만큼 자기 속에 의의 기능이 남아 있게 되니, 이것이 건설구원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③ 심신의 상급

건설구원의 결과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각자가 평생 얼마나 상 받을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몸 자체가 깨끗해진 정도, 그 마음과 몸이 가진 실력에 이어 자기 마음과 몸이 움직여서 얼마나 큰 일을 했고 또 많은 일을 했느냐는 문제가 건설구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사람마다 그 양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상이 클 것이고, 실력은 있어도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상이 적을 것입니다.

(3) 건설구원의 성격

① 중복적 건설

기본구원은 단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한 번의 기회에 기본구원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주어지는데, 건설구원은 평생 마주치는 현실에서 항상 건설구원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중복적 성격을 가집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이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큰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젊어서는 대충 교회를 다닌 사람이 노년에 크게 노력하여 젊을 때 못다 한 충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자가 뒤에서고, 뒤선 자가 앞설 수 있는 것이 건설구원의 성격입니다.

신사참배 때는 실패했으나 다시 준비하여 6.25를 승리하고 순교한 종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사참배를 승리한 종들 중에서 일찍 죽지 않은 분들은 훗날 교권싸움에서 전부 실패자들이 됩니다. 건설구원의 기회는 평생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개별적 건설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기본구원은 그 사람에게 천국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면’을 완전히 해결하여 중생시킵니다. 따라서 기본구원은 빠진 부분이 없고 미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구원이라 하는 성화의 과정은 매 현실마다 관련 있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생 개별적으로 성화시킨 것을 모두 합하면 그가 평생 마련한 건설의 총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평생 심신을 성화시키는 건설의 과정은 매 현실이, 그 현실에 해당된 요소가 개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지 그 현실에 상관없는 요소들은 다음 현실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한 부분의 성공이 다른 부분의 성공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은 되지만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가진 심신의 모든 요소와 모든 부분이 전부 건설구원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 바로 그 날이 그 사람이 죽는 날입니다. 이런 면에서 건설구원도 부분적으로는 단번의 기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 성경 해석과 건설구원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만 받게 되는 것은 기본구원이며 우리가 죽도록 노력하여 말씀대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은 건설구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혼동하게 되면 전적 은혜로 주시는 것을 자기 노력으로 받겠다고 헛수고하는 천주교인과 같이 되고, 또 우리가 힘써 얻으라고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은혜는 다 허송되고 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성구는 전부 건설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죽도록 충성하고 노력해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신다고 말씀한 것은 믿는 사람은 그냥 받은 줄로 알고 감사만 하면 됩니다.

몇 가지 성구를 가지고 이 교리의 중요성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1) 열 처녀 비유 (마25:1-13)

① 본문 소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혼인준비가 있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 준비 여부에 따라 구원이 갈렸습니다. 평소에 깨어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때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② 성구 연구

본문의 두 종류 처녀는 택자와 불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종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두 종류의 처녀는 기본구원적으로는 다른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건설구원적인 면으로만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믿는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를 건설할 구원의 기회와 자기 심신의 요소를 도적맞고 실패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성구를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택자로 구원받은 것은 밤중을 대비하여 얼마나 기름을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되고, 또 불택자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자기가 게으르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구원에 실패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논리는 초대교회의 펠라기우스와 종교개혁기의 알미니우스를 잇는 기독교 전통이단설입니다.

이 성구는 믿는 사람들이 자기 평생 준비해야 할 건설구원에 속한 문제를 두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즉, 사건적으로 시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쉬임없이 닦치는 어려움을 두고 미리 준비하면 그 면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기 요소를 하나 더 마련한 사람이 되고, 만일 실패하면 더러워진 그 부분은 영원히 지옥에 버려야 하는 면을 가르친 성구입니다.

③ 참고로

두 종류의 사람이 성공과 실패로 나뉜 것은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인간 노력에 따라 나뉘었다는 것을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실패한 처녀들도 등과 기름을 가지고 갔고 그 등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택자들에게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등의 위치가 주어질 수도 없고 그 안에 티끌만큼이라도 세상을 밝히는 빛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천국은 성도가 평생 현실마다 주님을 만나는 현실을 말씀했습니다. 그 현실에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 되어 통과하느냐 아니면 주님 없이 인간 단독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해당된 부분의 성화가 결정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건설구원의 요소와 결과를 차분하게 살펴보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2) 부자 청년 (마19:16-30, 막10:17-31)

① 본문 소개

어떤 부자가 구원 얻는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첫째는 계명들을 지키고, 둘째는 있는 것을 다 팔고, 셋째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반문을 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린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② 성구 연구

여기 본문의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을 불택자라고 해석한다면, 이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 이유는 4가지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고 택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책망 받고 지옥에 버려지게 되는 것은 기본구원 받은 사람의 심신에 속한 건설구원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은 4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는 말씀에 따라 사람이 순종을 해서 이루는 것은 건설구원입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이 불택자였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전도나 할 일입니다.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4가지를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조건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택자와 불택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는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 하나님의 개별 명령을 덧붙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문제는, 천국 갈 택자와 지옥 갈 불택자로 나뉘는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갈 우리가 얼마나 의의 실력과 기능을 마련하느냐는 문제가 걸린 건설구원 문제입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의의 기능이 생길 것이고 거부하면 그 명령을 거부하는 데 관계있는 모든 심신의 요소와 실력과 재산은 전부 지옥에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는 순간에 전부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명령은 이제 우리가 순종으로 이를 건설구원의 문제입니다.

③ 참고로

이 성구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는데도 거부하는 부자들은 지옥을 간다고 해석하는 분들은, 그 명령에 거부하면 불택자가 된다는 주장을 내놓는 일이 됩니다. 이는 기독교 정통적인 이단들이 고집하던 해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4가지 명령을 놓고, 어떤 분들은 택자들에게는 사람으로서

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주셨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요구한 모든 명령은 전부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서 요구한 모든 명령은 우리가 읽을 것도 지킬 것도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행해야 할 책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 보고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신 것은, 건설구원도 인간이 순종하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 주지 않고는 순종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한 성구입니다.

(3) 거짓 선지자 (마7:15-27)

① 본문 소개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못된 나무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주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건설이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좋은 나무 같은 교인들이니 그들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므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인데 반석 위에 건설하는 자들이므로 비바람에도 그 건설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종류는 구원에 실패했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② 성구 연구

이 성구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말씀을 순종했느냐 제 마음대로 불법을 행했느냐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택자라고 한다면, 오늘 택자로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평생 거짓 선지자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대단한 곡해입니다. 현재 기본구원은 뚜렷하게 받았지만 그 행동과 그 생활 결과로 볼 때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무수합니다.

이 본문은 기본구원을 얻어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 우리가 평생 건설해서 나갈 심신의 요소 면을 두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믿는 사람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중생된 사람이 자기 심신의 요소 중에서 천국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③ 참고로

만일 이 본문이 택한 사람 자체가 천국 들어가는 문제로만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짓선지자가 아니며 우리가 건설한 것은 어떤 세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두고,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이들의 모든 행동은 이 본문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행동입니다. 또 해방 후 한국교계가 분열하며 온갖 투쟁을 다 벌였는데, 그 행동들을 이 본문으로 살핀다면 전부 지옥 갈 불택자들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본구원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의 교계와 교인들 중에 택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인 중에 택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 성구를 억해하

는 것이 아니라, 기본구원은 중생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전부 은혜로 해결된 면을 말하는 것이니, 이 본문은 기본구원 받은 사람이 평생 건설해 나가야 하는 심신의 개별 면을 말씀한 것입니다.

(4)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마:5:17-20)

① 본문 소개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는 다 지켜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가 하는데, 우리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 만일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한 것이 본문입니다.

② 성구 연구

이 본문에서, 말씀을 지킨 사람과 버린 사람의 차이는 천국을 들어가 못 들어가는 차이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꼭 같은데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로 나눌 것을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열 처녀 비유와 부자 청년의 비유 그리고 거짓선지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 본문과 비교를 한다면, 이 본문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 거짓선지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주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 하는데도 그대로 행치 아니했던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려운 환경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잠든 신앙이 되어 세월을 허비했던 어리석은 성도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천국

에서 크고 작은 차이로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전부 꼭 같아야 한다면, 손양원목사님과 같은 순생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과 오늘 돈 몇 푼 때문에 교회와 교인과 교단을 휘두르고 파는 목회자가 천국에서 꼭 같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두 사람이 꼭 같은 것은, 기본구원으로 천국을 무조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천국에서 크고 작은 차이입니다. 매 현실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예를 들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별들도 별들끼리 제각각 그 영광이 다를 것을 고전 15장에서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③ 참고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이 본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예로 든 성구들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의 거짓선지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자 청년이나 열 처녀 비유도 비록 그 가르친 시기나 장소는 다르지만, 단일성을 가진 주님이 가르친 단일성의 진리들입니다. 즉, 이 모든 성구에서 명령대로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끼리의 실력과 영광의 차이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며, 왜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는 성구입니다.

5. 신앙 현실과 건설구원의 적용

① 신사참배라는 죄의 의미

일본의 태양신에게 절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의한 것이 한국교회의 제27회 총회였습니다. 당시에 죄인 줄 알면서 투옥과 사형이 두려워 그렇게 했고 해방 후에는 공개적으로 그렇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고, 알면서 일부러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를 한두 번 짓고 만 것이 아니고 5년 7년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조차 거부하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죄를 분석한 다음, 건설구원을 알지 못했던 기존 정통 교리체계를 적용시켜 보면 한국교회에 고신교단 외에는 다 지옥을 가야 합니다. 고신은 해방 후 고신 소속만 천국에 간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친 것이 실은 목회현장에서는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교리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서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출옥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조서나 기타 기록들을 찾아보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② 신사참배로 범죄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

신사참배로 범죄한 사람과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똑같은 구원을 가질까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어떤 면으로도 차이도 없고 모든 면이 완벽하게 똑 같다고 한다면, 신사참배보다 훨씬 적은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구 죄를 지어라고 권면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120여년 역사를 통해 가장 큰 죄가 신사참배라는 것은 교계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사참배를 범한 사람은 전부 지옥을 가야 한다면, 은혜로 무조건 천국을 가게 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한 정통 교리는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은 뒤 회개를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만 지옥을 가게 된다면, 비단 그 죄 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사는데, 마지막 임종 순간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은 좌우될 것입니다.

적어도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죽거나 아니면 치매상태로 고생하다 죽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구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모순이 나옵니다.

③ 정리를 하자면

신사참배를 이겼든 졌든 상관없이 믿는 사람은 전부 천국으로 갑니다. 믿는 순간에 이미 천국을 가도록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죄와 작은 죄, 습관적인 죄와 실수로 짓는 죄, 회개한 죄와 회개를 거부한 죄에 따라 천국 간 우리들의 차이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꼭 같은 부분은 기본구원이고, 믿는 사람끼리도 제각각 다 다른 부분은 건설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신앙 현장입니다. 이것을 교리로 체계화 한 것이 백영희조직신학의 구원론 체계입니다.

칼빈 이후 오늘까지 시대마다 이런 종합적 체계로 정리한 분들은 없었으나 이 교리 선상에서 가끔 깨닫고 나오는 발표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표들은 신령한 눈으로 언뜻 보고 말한 정도일 뿐

이고, 교리 체계를 갖추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닫고 걸어갈 길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백영희신앙노선의 총공회 교리체계는 어느 한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수준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회사와 교리사의 시대 구분을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공회의 시각입니다.

④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는 합동측의 발표문

*다음은 1968년 합동측 교단의 경북노회 발표문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 최고의 성경신학자라는 박윤선목사님의 신학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경북노회는 현재 총신대학교가 속한 교단의 중심노회였습니다. 구원론을 두고 목회현장에서 5백여 년 내려온 칼빈주의 신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 백영희목사가 칼빈주의의 신조와 기독교 기본 이행에 끼치는 치명적 손해에 대하여

즉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이 거듭남과 동시에 다시는 결단코 추호도 범죄치 아니한다고 하므로써 그 영혼은 죄책을 지지 아니하므로 거듭난 후에 지은 죄를 뜻 없이 만들어 방종을 가져오게 하며 율법(하나님의 요구)을 아주 무의미하게 하여 버린다. 그들은 거듭난 후에 짓는 죄가 끼치는 영향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상급만을 못 받게 하는 것뿐이고 구원에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는 거듭남과 동시부터 죽는 시간까지 간음 살인 강간, 거짓말을 계속하는 생활 속에 있어도 구원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말한다. 그 내용인 즉은 그들은 구원을 양분하여 '기본구원' 과 '건설구원'을 말한다. 소위 '기본구원'이란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됨을 말하며 다만 중생만으로써 '기본구원'은 완성을 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건설구원'이란 '기본구원'을 얻는 자가 상급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헌신과 적선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구원은 중생만으로써 완성을 본다는 '기본구원'으로서 족한 것이고 '건설구원'은 전혀 없어도 상관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는 죽는 날까지 계속하여 간음, 살인, 도적, 거짓 속에 파묻혀 살아도 단지 상급이 없을 뿐이고 천국 가는 일에는 끄떡도 없다는 결론인 것이다. 고로 방종을 가져온다.

제2. 삼분론

1. 의의

① 삼분론과 이분설

사람은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는 것을 두고 둘로 나누면 ‘이분설’, 셋으로 나누면 ‘삼분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 정통교리 체계는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은, 사람의 구조가 몸과 마음 둘로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며, 몸은 손으로 만질 있는 부분을 말하고, 몸을 제외한 부분은 오로지 마음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영이나 마음이나 영혼은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삼분론은, 정통 교리가 아니며 그 주장도 여러 사람이 제각각 달리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시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백영희 삼분론의 입장만 말씀드립니다. 백영희 삼분론은 사람의 구조는 물질로 된 몸과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는 영적 존재인 영으로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은 중생될 때 단번에 구원받으면서 영원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몸과 마음은 평생 믿어가면서 고치고 또 훈련을 시켜야 하는 존재이니, 영은 기본구원의 대상이라 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은 건설구원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분설과 삼분론의 비교

삼분론은 짐승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꼭 같이 물질 재료로 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하여 이분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부분은 마음이고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삼분론은 사람이 중생된 것은 영이고, 몸과 마음은 중생된 영이 평생 성화시켜 나간다는 입장이고, 이분설은 사람이 중생된 것은 마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삼분론의 의미

삼분론 교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신앙 현실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 현실에 가장 밀접한 교리인 '구원론'에서 삼분론과 이분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성 요소를 논하는 이 교리는 항상 구원론과 연결 지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백영희신앙노선의 구원론은 건설구원론이 그 중심에 있고, 건설구원론이 체계화 된 것은 삼분론 교리체계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삼분론이 건설구원론과 함께 체계화 되고 발표되던 시점은 1960년경입니다. 당시는 구원론 때문에 이 교리가 집중을 받았는데 현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두뇌공학 등 인체공학 및 관련 학문의 발달로 이분설이 완전히 폐기되자, 삼분론은 구원론과 상관없이 삼분론 자체적으로 교리체계 전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인간의 창조

(1) 특수 피조물

① 인간의 위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영물로 된 영계와 물질로 된 우주로 나누어 만드셨습니다. 일단 사람에게는 물질계 우주를 통해 연습을 시킨 다음 하늘나라를 주실 것이므로, 그 훈련의 첫 장소가 에덴동산입니다.

인간은 물질계 내 만물 중에서 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그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므로 처음부터 만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인간에게 필요하여 이용물로 만든 것이 우주 만물이고 인간은 이 만물의 주격이며 하나님 노릇까지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위치는 만물 중에 특수하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그 구성 재료도 기능도 역할도 다 특별합니다. 훗날에는 영계와 우주를 다 합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우주 만물 전체를 통틀어, 위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이 우리들이며, 그 밑으로 만물이 있습니다.

② 인간의 특수성

■ 창조 과정의 특수성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논하고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 구성 재료의 특수성

인간만은 물질과 영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계는 영물만 있고, 물질계는 물질로 된 피조물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계와 우주를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영물로 된 영과 물질로 된 심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창조 모습의 특수성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과 꼭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영을, 몸은 마음을 본받아 지었습니다.

■ 맡은 역할의 특수성

인간은 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듯이, 우리 인간은 만물에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되어졌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에게 하나님 노릇을 할 존재가 인간입니다.

③ 창조의 과정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신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고, 하나님을 닮은 영과 물질로 된 심신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일단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된 인간을 제작한 다음,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창2:7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이 생령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한 그 생기 자체가 영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동작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작하시고 하나님께 연결시켜 전원을 넣은 다음, 그 제작물인 인간에게 시운전으로 시킨 일이 창2:19에서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만물의 위치와 역할과 활동을 배정한 것이 곧 이름을 짓는 일인데,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행한 것은 만물에 대한 인사조처였습니다.

(2) 인간의 구성 요소

① 영

■ 재료

사람의 제일 내부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비록 물질계 안에 있지만 그 재료는 물질이 아니고 영물입니다.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물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신령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필요한 것은 물질계 세상에서 훈련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곳은 영계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영계와 영계의 만물을 지배할 총 주인이므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 위치

영은 마음 안에 거주합니다. 마음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해서 몸을 다스리며, 몸을 통해서 외부 만물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육체나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영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을 합해야 인간이므로 나누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가치와 위치는 아주 다릅니다.

영은 그 사람 내부에서 주격입니다. 영이 주인이고 마음과 몸은 각각 차원을 달리하며 영을 보필하며 영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 특성

첫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이를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성의 차원은 다릅니다.

둘째, 단일성의 존재

영은 복합체로 된 물질과 달리 단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쪼개고 나누지를 못하고, 이 부분은 병들고 저 부분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죽을 때도 단번에 죽고, 또 중생될 때도 단번에 중생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만 사용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만 사용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영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악령이 영으로부터 심신을 빼앗아 우리의 심신을 사용했지만, 심신의 주격이 되는 영은 죽이기만 했지 그 영을 자기 소유로 삼아 사용하지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 순간 작동을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영 속에서 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넷째, 사람의 주격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물질입니

다. 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우리 속에 주체는 바로 영입니다.

따라서 영이 죽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죽은 것이고, 영이 살아 있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은 살아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 번 중생된 사람은 육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육이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② 마음

■ 재료

정통 교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천사와 같은 영물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는 정통 교리의 역할이 천주교로부터 기본구원을 찾는 데 주력을 했으므로 사람의 인성 구조에 대하여는 집중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은 물질입니다. 다만 신비한 물질이므로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뿐입니다. 물질인 피아노를 칠 때 나오는 소리를 만질 수 없고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영물이 아니고 물질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물질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짐승에게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타락한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마음은 살아 있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위치

마음은 영과 몸 사이에 위치합니다. 물질 중에서는 가장 탁월하지만 몸 안에만 위치하지 몸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영이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아래로 몸을 지배하는 위치가 마음입니다.

■ 특성

첫째, 영의 소유격

마음은 독립하지 못하고 영에게 붙들려서만 움직이도록 지음을 받았습시다. 따라서 자기 영에게든지 아니면 악령에게든지 그 한쪽에 속하여 명령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적 악령에게 붙들려 있고, 믿는 사람의 마음은 영과 악령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둘째, 소속 결정권

비록 독립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그 대신 자기 주인을 누구로 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만물과 달리 인간에게 심판이 있는 것도 바로 이 자유성 때문입니다. 만물은 강도의 손에 잡힌 칼과 같아서 행동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느 영에게 속하든지 소속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복합적 존재

마음은 물질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 요소가 합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물질이므로 몸과 같이 칼로 해부하고 나누지는 못하지만, 마음 차원에서는 그 구성이 인체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할 때는 인체와 같이 내부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로 움직이게 됩니다.

넷째, 핵심적 역할

마음은 비록 영의 소유격에 지나지 않지만 단순히 기계로 사용되지 않고 그 소속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성이 있습니다. 이 자유성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기본 요소인데, 마음이 가진 이 자유성 때문에 마음은 타락한 우리에게 중생 후 평생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부각됩니다.

마음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는 그 횡수와 정도에 따라 심신의 성화의 양이 결정됩니다. 훗날 영이 영계와 우주의 주인공이 되고 나면 영이 전면에 나서지만, 오늘 세상에서 준비하는 기간은 마음을 통해 심신으로 된 육을 길러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가출했다 겨우 집에 돌아온 아이를 예전처럼 다시 착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 식구들이 그 아이를 위해 배려하고 가족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③ 몸

■ 재료

몸은 마음과 함께 물질로 된 존재입니다. 몸은 인간이 만물의 주인공 노릇을 할 때 가장 외부에서 만물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실무자이므로 만물과 꼭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만물과 교통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만물과 같은 재료지만 만물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만물 중에 가장 정교하고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치

몸은 위로 마음에게 지배를 받고, 아래로 만물을 접촉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현장 공무원과 같습니다. 그 위치가 인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록 재료는 만물과 같은 저급의 물질로 되었지만 그 값은 만물 중에 으뜸입니다. 일반 만물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붙들려 움직이는 인체는 의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 특성

첫째, 타락의 선봉

몸은 영과 마음으로 더불어 인간의 일부분입니다. 그 위치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 가장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 대신 몸이 사람의 일부이므로 이 몸이 행동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몸은 만물을 직접 다스리는 실무자이므로 만물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몸이 그 기회를 타고 가장 만물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악령이 만물을 통해 몸을 타락시키고, 이 육체를 붙들고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타락한 이 세상 기간 동안은 육체가 천하 모든 죄를 접하고 그 죄를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타락의 선봉에 있습니다.

둘째, 영광의 외모

오늘 우리 인체는 타락한 세상에서 천하 죄악을 다 끌고 오는 창구가 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영계와 우주의 주인공으로 모든 피조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때에 우리 인체는 만물을 직접 상대하는 가장 외부의 존재로, 영광스런 하나님의 아들의 외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의 우리 인체는 만물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울 존재지만,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모습을 가진 이 육을 영광의 외모로 만들어가는 기간입니다.

(3) 삼분론의 성경 근거

앞에서 삼분론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일일이 성경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분량이 너무 많을 것이므로 교리서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할 것이며, 여기서는 총론적으로 성경 근거를 제시합니다.

참고로, 백영희신앙노선은 성경을 해석할 때 원어 때문에 오히려 성경 해석이 오도되는 경우를 대단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성경을 원어 단어와 문법적으로만 접근하고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의미를 모른다면 원어 지식 때문에 오히려 성경해석이 막힌다는 입장입니다.

성경은 기록될 때부터 원어의 언어적 접근으로는 그 본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총공회의 지적입니다. 이는 신학계에서 처음 듣는 주장이겠지만, 새겨보고 생각하면 이 주장이 바로 성경이고, 그 반대론이 신학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① 히4:12과 살전5:23의 ‘영과 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영’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거나 또는 마음의 작용에 관계된 이름이 아니라 실체적 요소임을 가르치는 성구입니다. 본문에서 ‘관절과 골수’는 신체의 구체적 부분을 예시한 것이고 ‘혼’과 다른 존재 하나 ‘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성구는, 이분설에서 관절과 골수가 몸인데 둘로 표현했듯이 혼과 영도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구 하나만을 가지고는 삼분론의 근거도 될 수 있지만 이분설의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살전5:23에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본문에서 히4:12의 관절과 골수라는 신체 두 부분을 ‘몸’으로 통칭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② 롬8:6의 ‘육신의 생각’

본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켰습니다. 삼분론과 관련하여 이 성구에서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분설은 사람을 영물로 된 영혼과 물질로 된 몸으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영물로 된 영혼이지 물질로 된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어적 사용이 어찌 되었든지 상관없이 육신에게 생각이 있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분설로는 육신에게는 따로 생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삼분론이 마음을 몸과 함께 물질로 분류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③ 전3:20-21의 ‘짐승의 혼’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는 것이 본문입니다. 짐승은 창2:19에서 흠으로만 만든 물질 존재입니다. 짐승에게 물질인 육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 원어의 단어를 놓고는 아무리 연구해 봐야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물질이며, 짐승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④ 창6:3의 ‘육체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영은 죽고 육으로만 살게 됩니다. 육으로만 사는 인간이 가진 것을 두고 여기는 육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현재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면 바로 성경 해석이 되어집니다.

영적 존재는 죽고 물질로 된 존재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타락한 후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몸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물질로 된 것입니다. 물질 재료로 된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타락 후 인간이라는 뜻으로 ‘육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⑤ 창3:1-4, 엡2:1의 ‘타락과 중생’

창2:17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창3:1-4에서 뱀은 죽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반드시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엡2:1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아담이 범죄 후에도 계속 살아 움직이다가 930년에 죽게 되는데, 그 아담 속에 죽은 것은 무엇인가? 몸은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이름을 혹 잘못 부를 수는 있을지라도 몸과 마음은 범죄로 죽지 않고 마음 안에 다른 존재가 죽었으니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 삼분론에서는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⑥ 롬8:1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중생 된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생 된 사람에게는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일3:6, 9, 5:18에서 주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믿고 중생된 사람에게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죄를 짓습니다. 또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을 제외하고, 중생이 된 부분, 그리고 중

생이 된 후에는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은 물질로 만들어진 심신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니, 곧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신 이 부분은 사람을 영혼과 신체 둘로만 나누는 이분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해절입니다.

(4)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 교리

① 두 종류의 단어사전

이분설과 삼분론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가 말하는 실체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동명이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양측이 사용하는 사전의 정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분설의 입장으로 선입관이 굳어진 분들은 삼분론을 대할 때 그 사용하는 단어 때문에 후에 아주 크게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삼분론에서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핵심 교리로 제시하는 바, 한국의 대신학자로 정평난 분들까지도 이 교리를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교리가 발표되었다고 번역을 한 다음, 그 오역된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② 건설구원론과 삼분론

■ 두 교리의 조화와 일치

중생된 사람은 중생되는 순간 ‘단번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기본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중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은 두 번 반복이 없습니

다. 이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이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본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중생된 사람은 이제 천국 가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나, 평생 자기 심신을 얼마나 어떻게 성화시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 평생의 건설에 관련된 면을 건설구원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론의 전제는, 한 번 중생되면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고 완전히 죄로부터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구원론에 대하여는 정통교리도 이렇게 깨닫고 있었으나 인성 구조를 이분론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속에 어느 부분이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중생되었는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분론은 위에 제시한 성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은 영적 존재일 수 없으니 마음 안에 영적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고, 또한 구원론에서도 기본구원으로 받은 중생은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마음 안에 영적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리가 연결되면,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교리가 도출되므로, 사람이 처음 믿을 때 그 영이 중생하게 되고, 이 영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대속이 입혀졌으므로 이를 기본구원이라 하며, 이 기본구원을 입은 사람이 자기 마음과 몸을 평생 회개시켜 성화시키는 과정이 건설구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두 교리의 중요성

모든 교리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은 바로 우리 매일 생활에 늘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또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교회 교리의 발전사는 신앙의 기준으로 성경에 대한 확립이 주후 1세기 기간에 먼저 있었고, 그다음 4세기까지 성경으로 섬길 하나님을 신론으로 확립했습니다. 그 다음 5세기까지는 타락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신인양성일위로 확립했고, 이 예수님이 만든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6세기에 이르러 루터와 칼빈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는, 사람이 믿고 나면 중생과 함께 천국이 확정되는데, 왜 평생토록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속제가 바로 건설구원교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중생되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영이니, 영은 중생되는 순간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중생되고, 중생된 이후 평생은 마음과 몸을 회개시켜 깨끗하게 만드는 성화의 건설이 우리가 평생 노력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중생된 영은 범하지 않고 마음과 몸만 범하는 것이니, 믿는 사람은 자기 심신의 성화를 위해 회개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체계는 정통교리가 그 동안 구원론의 미진으로 난해절로 남겨둔 난해절을 전부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건설구원론을 이렇게 확립하지 않고 오늘까지 교회가 루터와 칼빈의 구원론으로만 성경을 대하여, 무수한 의문만 가져왔으나, 백영희 교리체계로 그 모든 어두움이 걷히게 되었습니다. 총공회의 신앙노선과 교리체계를 소개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죄와 타락을 두고, 백영희 교리체계가 아니라면 신앙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공회의 시각입니다. 또한 교계가 교권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것은 백영희 행정노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공회의 시각입니다. 총교회 신앙노선을 간단하게라도 소개하는 이유는 교단 홍보가 아니라 신앙노선 때문입니다.

【부록】

1. 총공회 중요 기록 발췌

제 1 회 : 1966. 5. 26. 총공회 창립공회, 기본 노선 발표

① 개교회 발족취지

진리 가결의 전원일치 원칙

성경 진리 근거 처리의 불문법 원칙

개교회주의를 위한 비상존 기구로 총공회장 유지

② 개교회 유고 처리

사건에 따라 지방적 혹은 전체적 공회 소집

동등 자격으로 참석하여 경비는 자부담 원칙

성경적 처리 후 해체, 모든 형태의 상존 기관 반대

③ 개교회 정치

개교회의 법전은 오직 신구약 성경

타교단의 헌법은 참고

성경적 처리는 각자의 양심대로 하며 상호 권고

권징은 권고로만 그치고 불간섭

교역자 이동은 본인 의사, 교회 형편, 동역자 의사

제 2 회 : 1970. 8. 3. 목회자의 무한 책임

① 제1회 공회의 결의 재확인 및 교역자의 목회 자세관 확립

목회자는 가진 위치와 권위만큼 책임

② 교역자의 목회 충성을 위한 3개안

교역자의 실력 평가를 위한 교세 등급 구분

교역자 이동시 기준은 실력 평가

교역자의 침체 방지를 위한 시무투표

③ 기타 사항

교인의 경제 문제 개입에 주의

각 교회별 교역자 기도실 준비

교역자회 시작 결정(첫 주 지난 월-화)

교회내의 사적 모임 금지

2. 주요 교리 교훈 요약

(1) 하나님을 향한 지식 13 가지(132호 1986. 1. 12. 밤)

- 1)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 2) 영원 자존 불변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 3) 영원 자존 전지 전능 하나님 우리 아버지.
- 4) 영원 자존 하나님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꼭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 5)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영계와 우주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영원을 주권 의지로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 6) 목적을 위해 예정대로 주권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 7) 우주와 영계의 전부를 홀로 보존 관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 8) 독생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 불의, 원수 이 모든 것을 담당시켜 십자가 죽음으로 사죄, 칭의, 화친의 공로를 설정하사 우리 대속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 9) 대형의 사죄, 대형의 칭의, 대화친의 영생을 대속으로 주신 은혜의 주님.
- 10) 신인양성일위로 부활하사 현재, 미래, 영원까지 신인 친합 일행이 이루어지게 기도와 역사로 힘써 이루시는 주님.
- 11) 대속하신 공로로 성령과 진리로 함께 역사하사 중생, 성화, 영화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와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게 계속 힘써 만드시는 주님.
- 12)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충만을 영원 기업으로 주신 은혜의 주님.
- 13) 겨자씨 믿음의 계속으로 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주님

(2) 16가지 구속

구원 근거 본질 5가지

- 1) 하나님의 목적인 예택 구원.
- 2)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 구원.
- 3)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구원.
- 4)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구원.
- 5) 신인 양성 일위의 사할 구원.

건설하여 주신 자체 구원 본성 8가지

- 1) 죄에서 행방 자유 구원.
- 2) 사망에서 해방 자유 구원.
- 3) 마귀에서 해방 자유 구원.
- 4) 하나님 공심판 통과 하나님의 의 구원.
- 5)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 구원.
- 6) 하나님을 향한 중생 구원
- 7) 진리 영생 구원.
- 8) 영감 영생 구원.

구원 기업 본분 3가지

- 1) 제사장 직분 구원.
- 2) 선지자 직분 구원.
- 3) 왕 직분 구원.

(3) 회개 20가지 (사1:18, 눅13: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
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

1)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 (1)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 (2)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것.
- (3)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 (4) 구별 없이 복종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만 복종 할 것.

2) 성경에 대해서

- (1) 성경을 다른 독서량만치 읽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모든 독
서량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것.
- (2)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을 것.
- (3) 성경으로 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으로 살 것.
- (4) 성경을 항상 지참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어디서나 지참할 것.

3) 사람에게 대해서

- (1)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대한 죄를 회개하여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대할 것.
- (2)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것.
- (3) 사람에게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여 사람에게 겸손할 것.
- (4) 사람을 조심 없이 대한 죄를 회개하여 사람을 삼가할 것.

4) 사건에 대해서

- (1) 사건을 모든 사람들로만 의논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문의할 것.
- (2) 인간 판단만을 상대 위주했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판단만 위주할 것.
- (3) 사람의 지도만을 받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지도만 받을 것.
- (4) 도움을 가리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도움 받을 것.

5) 물질에 대해서

- (1) 물질을 피조물에게서만 받은 인식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받을 것.
- (2) 보관 저축주의로 살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보관하라는 것만 보관할 것.
- (3) 물질 주고 받은 것을 자유로 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라 하시는 것만 줄 것.
- (4) 사욕대로 월권 남용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것만 사용할 것.

(4) 기도 제목 15가지

- 1) 기본구원 10가지를 감사함으로 입고 살게 하옵소서.
- 2)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3)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믿음으로만 충성하게 하시고 영육 강건을 주시고 범사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 4) 신앙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남녀 권찰님들 남녀 반사님들 각부를 담당하신 모든 직원님들에게 영육의 강건과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충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 5) 성경 공부와 기도와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사랑과 화평에 힘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 6) 완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믿고 소망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 7)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죽여주시고 모든 이단과 고라의 당파를 멸하여 주옵소서.
- 8) 믿음의 가정들과 국가와 사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9)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환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 10) 십계명을 다 지키고 더러운 음행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 11) 교회 일에 열심하고 각자의 자기 일에 열심 있게 하옵소서.
- 12) 항상 감사와 기쁨과 간절함과 담대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 13) 부절히 회개와 겸손과 진실함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 14)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평강 중에 재림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 15)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할 은혜를 주옵소서.

(5) 주일날은 (제 4 계명, 공과모음 1983. 4. 23. 10공과)

- 1) 매매하지 말 것.
- 2) 일하지 말 것.
- 3) 마음과 몸과 의복을 깨끗이 할 것.
- 4)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것.
- 5) 예배에서 말씀과 성화를 받을 것.
- 6) 받은 은혜를 온 가족이 모여 새김질 할 것.
- 7) 남은 시간이 있으면 심방 전도할 것.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신앙노선 (요약)

2003년 7월 17일 초판발행

발행인 장 천 룡
편집 전 병 재
발행처 **백 영 회 목 회 연 구 회**
주소 (556-893) 전남 여주시 울촌면 신흥리
1017-13 신흥교회
연락 061)682-9800, 017)631-1631
www.pkist.net pkist@pkist.net

값 2,000원

